

제9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2018.11.1 [목] ▶ 3 [토]

보고서



The East Asia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 Congress

주최 나라현

후원 일본국총무성, 일본국외무성,
(일반재단법인)자치체 국제화 협회



一般財団法人
自治体国際化協会

본 사업은 일반재단법인자치체국제화협회의 조성사업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제9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보고서

【 목 차 】

프로그램	2
인사말	3
참가지방정부 단장명부	4
메인 세션	
테마 1 「농림어업의 진흥」	8
테마 2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 육성」	18
서브 세션	
테마 1 「농림어업의 진흥」	28
테마 2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 육성」	36
분과회 등 보고	42
시모이치초 「농림어업 분과회」	42
충청남도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43
총 회	44
대표 기자회견	46
신문기사	55
자료집	63
테마 1 「농림어업의 진흥」	65
[리저널 리포트]	65
· 산둥성	66
· 간쑤성	68
· 시안시	70
· 뤼양시	74
· 쑤저우시	76
· 공주시	78
· 부여군	80
· 경상북도	82
· 경주시	84
· 이시카와현	86
· 후쿠이현	88
· 야마나시현	90
· 미에현	92
· 교토부	94
· 와카야마현	96
· 시마네현	98
· 도쿠시마현	100
· 가가와현	102
· 고치현	104
· 나라현	106
· 니가타시	108
· 고후시	110
· 나라시	112
· 덴리시	114
· 가시하라시	116
· 고세시	118
· 아스카무라	120
· 고료초	122
· 시모이치초	124

테마 2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육성」	127
[강사 스피치자료]	127
[리저널 리포트]	137
· 장쑤성	138
· 청두시	140
· 린이시	142
· 서자바주	144
· 말라카주	146
· 발레르시	148
· 경기도	150
· 충청남도	152
· 야마가타현	154
· 후쿠시마현	156
· 니가타현	158
· 나가노현	160
· 시즈오카현	162
· 돗토리현	164
· 구마모토현	166
· 나라현	168
· 다카조시	170
· 아라카와구	172
· 다카야마시	176
· 다자이후시	178
· 가쓰라기시	180
· 미야케초	182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대하여	185
1. 설립 취지	186
2. 회원 일람	187
3. 개최 실적	188

※직함은 회합 당시의 것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제9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개요

2018

● **11/1 (목)** ————— 호텔 닛코나라

14 : 00 — 18 : 00

양자 회담

17 : 30 — 21 : 00

석식

2018

● **11/2 (금)** ————— 호텔 닛코나라

08 : 30 — 08 : 50

개회식

09 : 00 — 12 : 00

토의 (오전부)

메인 세션 (테마1) ※분과회 등 보고를 포함
서브 세션 (테마2)

12 : 00 — 13 : 00

중식①

13 : 00 — 16 : 00

토의(오후부)

메인 세션 (테마2)
서브 세션 (테마1)

16 : 15 — 17 : 15

총회 · 지방정부 PR타임

17 : 15 — 17 : 35

기념 촬영

17 : 45 — 18 : 15

대표 기자회견

18 : 00 — 18 : 45

지방정부 PR타임

19 : 00 — 20 : 30

교류회

20 : 30 — 21 : 55

나이트 익스커션(가스가타이사 신사)

2018

● **11/3 (토)** ————— 호텔 닛코나라

07 : 30 — 13 : 30

익스커션 · 중식②

(사슴 불러 모으기, 헤이조큐 궁터, 동아시아 음식 페어)

인사말



아라이 쇼고

나라현 지사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에, 동아시아 지방 정부회합은 제9회째 개최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회합에는 크게 3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목적은 지방정부의 대표가 지역의 실정이나 시책을 보고하고, 거리낌 없이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공동 과제, 나아가야 할 방향성, 시행착오 상황을 서로 배운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 회합의 다자간(multilateral) 교류는 물론, 양자간(bilateral) 교류에도 힘써, 지방정부 간에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회합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여 과제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각각의 지역 진흥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나 문화 교류를 더욱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회합이 국가를 넘어서 상호교류의 플랫폼이 되어, 평화롭고 안정된 동아시아 발전에 공헌하기를 바란다.

이번에는 ‘농림어업의 진흥’과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육성’의 2가지가 테마로 꼽혔다. 지방정부 대표에 의한 토론이 중심인 ‘메인 세션’에서는 거리낌 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쳐, 부디 유익하고 가치 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서브 세션’에서는 리저널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사례 발표나 의견 교환을 하여 상호 정보 공유를 도모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회합에서는 각 지방정부의 매력이나 특징을 소개하는 PR 시간이나, 부스 전시 코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향후 참고하고자 한다.

가을은 나라(奈良)의 자연과 풍경이 가장 멋진 계절로써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익스커션 등을 통해 나라의 가을을 한껏 느껴주시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의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또한 본 회합에 참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며, 환영 인사를 올린다.

참가지방정부 단장명부

People's Republic of China

Name	Organization
Shandong Province	
ZHAO, Dongbo	Director, Asian Affairs Division of Shandong Provincial Foreign Affairs Office
Gansu Province	
ZHAO, Jun	Directo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Center, Foreign Affairs Office of Gansu Provincial Government
Chengdu City	
JIANG, Bin	Director General, Chengdu Municipal Foreign and Overseas Chinese Affairs Office
Suzhou City	
LI, Xiaoning	Secretary General, Suzhou People's Government
Linyi City	
ZHU, Jianhua	Consultant, The Commission Office for Public Sector Reform of Linyi

Republic of Indonesia

Name	Organization
Province of West Java	
Koesmayadie Tatang Padmadinata	Assistant of Administration, Regional Secretariat of West Java

Malaysia

Name	Organization
Melaka State	
Mohd Fadhil Bin Hassan	Senior Principal Assistant State Secretary, Local Government Unit, Melaka State Government

Republic of the Philippines

Name	Organization
Municipality of Baler	
Reynaldo Esteban, MAPINDAN	Sangguniang Bayan Member, Legislative Division Office of the Sangguniang Bayan

Republic of Korea

Name	Organization
Gyeonggi-do Province	
JEONG, Kyu Sik	Deputy Director, Foreign Affairs and Trade Division
Chungcheongnam-do Province	
NAMGUNG, Yeong	Vice Governor for Administration Affairs, Chungcheongnam-do Province
Gongju City	
JEONG, Hong Suk	Director, Agricultural Administration Division
Buyeo County	
YU, Heung Soo	Deputy Mayor, Buyeo County
Gyeongsangbuk-do Province	
LEE, Joung Ah	Staff,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 Cooperation
Gyeongju City	
JOO, Nak Young	Mayor, Gyeongju City

참가지방정부 단장명부

Japan

Name	Organization
Yamagata Prefecture	
KURODA, Ayumi	Director, Osaka Branch Office
Fukushima Prefecture	
ABE, Hidehiro	Office Director, Osaka Office
Fukui Prefecture	
MUKAIDE, Shigemi	Director-General, 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Yamanashi Prefecture	
MASEGI, Tamaki	Vice Governor, Yamanashi Prefecture
Nagano Prefecture	
NAGATA, Toshihiko	Associate Director General, Industry and Labor Department
Shizuoka Prefecture	
MASUI, Hiroshi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Diplomacy
Mie Prefecture	
WATANABE, Shinichiro	Vice Governor, Mie Prefecture
Kyoto Prefecture	
SHIMIZU, Tatsuya	Director, Agricultural Administration Division
Wakayama Prefecture	
HARA, Yasuo	Director General,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partment
Tottori Prefecture	
HAMAGUCHI, Mie	Section Chief, International Affairs Division
Shimane Prefecture	
KURIHARA, Ichiro	Deputy General,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partment
Tokushima Prefecture	
KAWAI, Tadafumi	Department Hea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Department
Kagawa Prefecture	
KOKUBU, Shinji	Director General, Agricultural Administration and Fisheries Department
Nara Prefecture	
ARAI, Shogo	Governor, Nara Prefecture
Niigata City	
ARAI, Hitoshi	Vice Mayor, Niigata City
Kofu City	
SATO, Atsushi	Director, Agriculture and Forestry Promotion Section
Nara City	
NAKAGAWA, Gen	Mayor, Nara City
Tenri City	
NAMIKAWA, Ken	Mayor, Tenri City
Kashihara City	
MORISHITA, Yutaka	Mayor, Kashihara City
Gose City	
HIGASHIGAWA, Yutaka	Mayor, Gose City
Katsuragi City	
AKO, Kazuhiko	Mayor, Katsuragi City
Miyake Town	
MORITA, Koji	Town Mayor, Miyake Town
Asuka Village	
MORIKAWA, Yuichi	Village Mayor, Asuka Village
Koryo Town	
YAMAMURA, Yoshiyuki	Town Mayor, Koryo Town
Shimoichi Town	
SUGIMOTO, Tatsuaki	Town Mayor, Shimoichi Town

Name	Organization
Nara Prefectural Assembly	
OKUYAMA, Hiroyasu	Vice Chairperson
WADA, Keiji	Chairman, Committee on Economic and Labor

개 요

Overview



테마1 메인 세션 「농림어업의 진흥」

참가 지방정부	중 한 일 국 : 산둥성, 간쑤성, 쑤저우시 국 :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경상북도, 경주시 본 :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도쿠시마현, 가가와현, 나라현, 니가타시, 나라시, 덴리시, 가시하라시, 고세시, 가쓰라기시, 미야케초, 아스카무라, 고료초, 시모이치초
강 사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강사 스피치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사회 경제의 근대화에 따라 농림어업이라는 산업의 존재는 매우 비중이 작아져 왔다. 그러나 근년에는 공업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농림어업이 첨단산업이라고 할만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의 새로운 변화로서 농림어업에 4가지 의의가 생겨나고 있다. 즉 ①농림어업은 규모는 작지만 실은 성장산업, ②복지와 관광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6차 산업화를 통한 시너지 확대, ③국토보전기능, ④고령자에게 있어서의 자급농업의 중요성 등이다.

일본의 농림어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로 매우 작다. 그러나 이 수치는 수년 전에 약 0.8%까지 내려갔던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 점차 올라가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출품도 농림수산물의 비율이 약 1.1% 차지하게 되었으며 제로에 가깝던 비율이었던 약 10년 전의 수준과 비교하면 생산물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사업자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전체 농업자의 생산물 매상은 토요타 자동차 한 회사의 매출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농업에는 약 200만명이 종사하는 한편 토요타 자동차의 사원은 7만명이다. 이를 보고 농업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라고 지적하는 경향도 있는데 오히려 많은 고용을 낳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종사자의 반수 이상이 고령자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지방에 재주하는 수많은 고령자가 삶의 보람과 건강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출하액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육류 생산액은 고품질·고가격 제품의 생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강증진을 위해 평소부터 육식을 하는 고령자가 증가함으로써 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만들어 판다’가 아니라 농림수산물의 가공판매와 관광 등 다른 산업과 조합시켜 사업전개를 하는 ‘6차 산업화’ 시책이 진행되고 있어 이제 일본의 시장 규모는 2조엔을 넘고 있다.

농업과 복지를 조합시킨 선진적인 사례의 하나로서 아오모리현에는 복지시설을 통한 6차 산업화 사례가 있다. 지적장애자 여러분들이 농원에서 야채와 과일을 재배하여 직판장에서 판매뿐만 아니라 빵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도 하고 있어 고품질의 상품들이 인기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고용과 인적 교류를 낳고 있다.

일본은 국토의 약 66%를 삼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숲과 산은 손질을 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토사붕괴 등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예방해 주는 것이 임업이며 국토보전상 큰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약 12%는 농지다. 공업화를 거친 후에도 수많은 농지가 전해내려 온 덕분에 현재 농지가 성장산업이 될 여지가 있었으며 고령자가 농업에 종사하거나 공장 옆의 농지를 활용하여 물건 만들기(모노즈쿠리)와 농업을 조합시킨 6차 산업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도도부현별 생활보호율을 비교하면 나라현의 생활보호율은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는데 와카야마현은 더욱 낮고, 한편 오사카나 도쿄 등 도시부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농림지가 남아 있어 고령자가 자급농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일수록 생활보호율이 낮다는 사실은 나라현과 같은 지방이 더 고령자가 경제적인 궁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015년에 일본의 고령화율은 25%를 넘었다. 중국은 약 10%, 한국은 약 14%라고 하는데 양국 모두 30년 후에는 현재의 일본과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고령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장래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과 한국의 지방정부 여러분들은 고령화 선진국인 일본에서 대도시 바로 옆에서 농업을 유지해 온 나라현으로부터 부디 많은 것을 배우셔서 고령화 사회의 농림어업 진흥에 대하여 숙고하셨으면 한다.

메인 세션 참가자분들



중국 · 산둥성

ZHAO, Dongbo

외사판공실 아시아처 처장



한국 · 공주시

JEONG, Hong Suk

농정유통과 과장



중국 · 간쑤성

ZHAO, Jun

외사판공실 번역통역센터
주임



한국 · 부여군

YU, Heung Soo

부군수



중국 · 쑤저우시

LI, Xiaoning

비서장



한국 · 경상북도

LEE, Joung Ah

국제통상과 주무관



한국 · 충청남도

NAMGUNG, Yeong

행정부지사



한국 · 경주시

JOO, Nak Young

시장



일본 · 후쿠이현
무카이데 시게미
농림수산부 부장



일본 · 시마네현
구리하라 이치로
농림수산부 차장



일본 · 야마나시현
마세기 다마키
부지사



일본 · 도쿠시마현
가와이 다다후미
농림수산부 부장



일본 · 시즈오카현
엔도 가즈히사
농업전략과 과장



일본 · 가가와현
고쿠부 신지
농정수산부 부장



일본 · 미에현
와타나베 신이치로
부지사



일본 · 나라현
아라이 쇼고
지사



일본 · 와카야마현
하라 야스오
농림수산부 부장



일본 · 나라현
(유식자)
시게오카 시게루
간키대학 농학부 교수(전
농학부 부장)



일본 · 돗토리현
하마구치 미에
관광교류국 교류추진과
계장



일본 · 나라현의회
와다 게이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일본 · 니가타시
아라이 히토시
부시장



일본 · 가쓰라기시
아코 가즈히코
시장



일본 · 나라시
나카가와 겐
시장



일본 · 미야케초
모리타 고지
정장



일본 · 덴리시
나미카와 겐
시장



일본 · 아스카무라
모리카와 유이치
촌장



일본 · 가시하라시
야마자키 다카히로
매력창조부 부장



일본 · 고료초
야마무라 요시유키
정장



일본 · 고세시
히가시가와 유타카
시장



일본 · 시모이치초
스기모토 다쓰아키
정장

특징적 사례의 소개



일본 · 시모이치초

장래를 겨냥한 지역사회 존속을 지향하는 시책을 전개

농업자의 영농기간 연장을 위해 밭일의 유니버설 디자인화를 겨냥하는 ‘라쿠라쿠 농법’을 개발. 농작업을 돕는 ‘전동 운반차’의 개발 도입과 감의 ‘열매’에서 ‘잎’으로 재배를 전환하는 등 산학관민(産學官民)이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 ‘시모이치초 “겐키지루시취락” 사업’에서는 지역산 허브와 농산물을 사용한 피자하우스, 집회소를 활용한 게스트 하우스 운영 등 지역주민이 스스로 발안하여 행동하는 시책에 대하여 폭넓은 지원을 실시. 또한, 원농(援農) 프로젝트를 통해 농가의 후계자 부족 문제 해결과 이주 및 정주 촉진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 · 경주시

브랜드화와 판로확대를 통한 지역의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농업국을 신설하여 지역의 농축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판로개척과 확대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로컬푸드 직판장을 설치하여 지산지소의 추진, GAP 등의 인증제도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강화, 수도권 등への 홍보강화, 인터넷 쇼핑과 대형마트에의 유통망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

또한, 친환경 농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지역산품을 사용한 학교 급식의 무상제공도 실시하고 있다. 전략적 품목의 육성과 농축수산물의 브랜드력 강화를 추진해 왔는데 다양화된 브랜드의 통일화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 · 충청남도

공업적 사고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성을 모색

6차 산업화를 진행중이다. 한국의 발효식품은 건강식품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가공식품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다. 또한, 관광농업 등, 농업종사자의 서비스 산업에의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9월에 개최한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에서도 농업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앞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공업적 사고에만 구애받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생산성과 비용면에서의 노력은 계속해 가지만, 품목과 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브랜드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견교환내용

1.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 농림어촌 만들기

(1) 동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지방의 고령화와 공동화(空洞化)

- 산둥성은 중국에서도 유수의 농업지역으로 예전에는 인구의 70%가 농업 종사자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젊은이의 도시부 유출이 진행되어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비율은 인구의 약 21%, 65세 이상은 약 14%인데 총인구가 1억명이 넘기 때문에 1,000만명 단위로 고령자가 있다는 계산이 된다. 고령자는 농촌부에 많기 때문에 일본과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 산둥성)

- 중국은 경제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으나 한편으로 젊은이들의 도시부 유출과 지방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농촌진흥책을 내놓고 인프라를 완비함으로써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되돌아와 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 · 간쑤성)

- 경주시에서도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이 약 14%인데 비해 약 20%에 달하고 있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부에서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약 65%에 이르며 마을 조직의 대표자를 70세 이상인 분들이 맡고 있는 지역도 많다. 경주시는 시가지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인데 의료, 교육, 주거 등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원하는 젊은 세대는 농촌을 떠나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농촌의 공동화가 심각하다.

(한국 · 경주시)

(2) 새로운 일꾼의 확보와 육성

- 미에현에서는 선진적인 농업종사자 밑에서 2년간 고용형 인턴십을 실시하고 또 미에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에 따라 석사과정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미에 농업판 MBA 양성주쿠(학원)’를 개설하였다. 매우 우수한 분들이 응모하셔서 농업의 미래에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일본 · 미에현)

- 야마나시현은 이주희망자가 많고 그 대부분이 농업을 희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에서 현역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주희망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립농업대학교에서 기술 실습도 실시하고 있어 실습 후에는 바로 농업종사자로서 독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 등에서의 연수와 기업의 종업원으로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정비에도 착수하고 있다. 스스로 농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는 농지와 농기구를 지원하는 시책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조성의 노력 덕분에 연간 300명 이상의 신규취농자가 배출되고 있다.

(일본 · 야마나시현)

- 기업 등을 은퇴한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일고 있다. 농업에는 은퇴라는 개념이 없다. 공업이나 기업 · 조직 등을 은퇴한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가 농업을 통해 건강증진과 소득 향상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 · 충청남도)

- 농촌에의 이주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용하는 측의 지역상황도 중요하다고 본다. 빈집이나 고민가(古民家)에의 이주희망자는 비교적 많지만 나온 집들은 많지 않다. 또한, 지역 주민들 측에는 지역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 등 불안요소들도 있다. 즉, 농촌측의 수용태세 부족과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닐까. 종래의 인프라나 생활수준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농촌측에서도 젊은이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이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 덴리시)

- 지방의 농촌부에서 농업 이외의 소득을 확보하는 방책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모색하고 싶다. 청소, 수송, 관광가이드, 간호, 보육 등, 농촌부에서는 각 분야에서 전문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서비스업에, 절반은 공무원으로 종사하고 한편으로는 농업에도 종사하는 ‘반농반공(공무원)’이라는 취업형태를 추진할 수 없을까 하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

(일본 · 나라현)

(3)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농촌의 활성화

- 니가타시에서는 숙박형 농업체험시설을 마련하고 있어 초등학교 커리큘럼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연간 1회 농산물 수확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농업의 매력을 알리는 시책으로서 지방정부의 수장이 교육분야에서 이러한 시책을 실시하게 된 것은 분권개혁의 한 성과이기도 하다.

(일본 · 니가타시)

- 덴리시에서는 고령화율이 40%를 넘는 산간부 학교에 대하여 시가지에서도 통학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특별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학생수는 약 30%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취향이 다양화해 가는 가운데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라현처럼 비교적 도시부와 가까운 지역은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 다양하고 매력적인 선택지를 부여하는 장소가 된 것 같다.

(일본 · 덴리시)

- 아스카무라에는 ‘아스카무라 특별조치법’이라는 국가의 법률이 있어 농촌지역으로서 보전을 하면서 역사적인 유물을 담보해 가기 위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한편으로 경관규제를 통해 공장 등을 건설하기 어렵다. 그러한 가운데 예를 들면 수학여행 학생들을 받아들여 고민가(古民家)에 숙박시키거나 농업체험, 지역 농산물을 사용한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매출을 농가에게도 분배하는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은 가능한 한 지역에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직판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생산액 중 60% 이상을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일본 · 아스카무라)

2. 6차 산업화를 통한 시너지 확대

- 간쑤성 덩시시는 중국 약재(한방약)의 재료 생산에 적합한 토지로 재배면적과 생산량 모두 중국 제일을 자랑한다.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방약 자체의 품종이 많을 뿐 아니라 화장품에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연구기관 등 해외와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덩시시는 중국의 감자 생산의 3대 산지이기도 하여 가공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프리화와 감자를 사용한 주식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중국 · 간쑤성)

- 한방약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를 돈독히 하면서 품질향상을 도모함과 더불어 지방에서 품질을 평가하여 특정 지역한정으로 수입 · 판매하는 방식이 지역의 농업정책으로서 가능한지 어떤지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 나라현)

- 고품질의 감잎 재배를 통해 농가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시모이치초의 사례는 전형적인 6차 산업화다. 그 외의 지역에서도 전통적으로는 자연식물을 사용했었는데 공업화와 더불어 플라스틱 등으로 대응했던 것이 다시 식물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농산물을 사용하여 다시 전통적인 방법으로 되돌리는 것도 6차 산업화의 하나의 시도라 할 것이다.

(모타니 강사)

- 덴리시에서도 감잎의 상품화에 착수하고 있으며 허브처럼 드레싱이나 차 등으로 가공하고 있다. 도심부에서 물품을 판매해 가기 위해서는 그 산지 자체가 매력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제대로 브랜딩함으로써 상품에 대해서도 ‘매력적이다’ 라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행정은 상품의 성분과 효능 등 과학적 실증과 크리에이터의 소개와 같은 외부로의 정보발신을 위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이 본래 지닌 매력을 지역과 함께 발전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 덴리시)

- 경주시는 한국의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농업에 있어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벼농사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의 전작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것도 포함하여 전작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조금이 준비되어 있어 경주시에서는 쌀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용 사료로 전작이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관광도시이므로 경관사업의 하나로써 농지에서의 화훼 재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해 가공식품의 생산보급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 경주시)

- 농촌으로 돌아오거나 이주하는 젊은이가 농업으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의 6차 산업화라고 할 만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즉, 농업뿐만 아니라 제조와 서비스, 특히 IT를 사용한 다양한 지적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 확보 · 육성과 같은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예를 들면 농학부에서도 IT스킬을 비롯하여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해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재의 하이테크화가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다.

(일본 · 나라현)

3. 앞으로의 농림어업을 위하여

(1)교육으로 이어가는 차세대에의 바통

-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차세대의 일꾼 양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용은 들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질 높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미각을 길들이는 것은 중요하여 경주시처럼 지역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책이 장래를 생각하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도심에의 일극집중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업은 지방의 피폐라는 국면을 만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각 등 본질적인 부분에서 농업이 교육과 연관을 가짐으로써 지역예의 금지가 싹터 도시부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일본 · 고세시)

-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초등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학구내에서 생산한 식재료만으로 음식을 만드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식재료의 일부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키운 것도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학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사육한 돼지를 소시지로 가공하여 먹는다. 잔인한 듯이 보이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어린이들은 생명을 먹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남김없이 먹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마을 전체에서 식육 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비용은 들지만 지역진흥이라는 면에서 일본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사례라고 생각하므로 참고로 하시면 한다.

(모타니 강사)

- 긴키대학은 부속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나라현 내에 설치하고 있어 스포츠를 시키면서 어린이들의 성장을 돌보는 ‘스포츠 아카데미’라는 사업 속에서 식육(食育)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나라현 특산물을 어린이들에게 먹이는 등 대학 본체의 농학부, 의학부(나라병원)와 나라현이 협력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유식자 · 시게오카 교수)

- 나라현에서는 스위스 베른주를 모델로 ‘포레스타’ 양성을 지향하는 ‘포레스트 아카데미’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임업발전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여 어떻게 임업을 유지, 발전, 활성화시켜 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식자 · 시게오카 교수)

(2)선진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농림어업의 형태

- 농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등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를 위해서는 ICT와의 통합 등 이른바 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농업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등이 시도되고 있으나 주로 비용문제를 이유로 소자본 사업자의 진출이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 대기업의 참여를 인정할지 여쭙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 · 충청남도)

- 국가전략특구의 하나인 ‘혁신적 농업실천특구’에의 지정을 받은 이래 ICT 등 최신 기술을 가진 많은 기업들이 니가타시를 방문하여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모내기 기계에 센서를 부착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계측, 인공위성과 시를 매개로 계측 데이터에 기초하여 비료의 양을 컨트롤하는 실증실험 등이다. 컴퓨터 처리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짐으로써 ICT의 도입·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어 일본에서는 지방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앞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지 않을까 싶다.

(일본·니가타시)

(3) 동아시아의 농림어업 진흥의 미래

- 대량 생산한 것을 싸게 파는 공업의 생산형태와는 달리 공업의 기술을 이용은 하지만 고품질의 것을 소량씩 생산하여 비교적 비싼 가격으로 제공한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농업이 나아갈 길은 이러한 방향성이 아닐까. 고부가가치·고품질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키워감과 동시에 도시 생활자들의 건강증진과 장수로도 이어질 것이다.

(일본·나라현)

-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농자를 확보하여 농업인구를 늘리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최저한의 수입확보와 농업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과 생명, 건강, 식량 등의 키워드를 통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진 듯하다. 농학부도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간사이 지방 이외의 대학에서도 농학부 신설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농업에는 ‘힘들다, 지저분하다, 위험하다’와 같은 이른바 3K 직장으로서 남성 중심의 세계라는 이미지가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깨끗하다, 건강하다, 쾌적하다’와 같은 새로운 3K로 바뀌고 있으며 여성들도 참입하기 쉬운 환경이 정비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긴키대학 농학부에서는 나라현과 연계하여 다양한 일꾼들의 원활한 취농을 지원하기 위해 유니버설 농법과 ICT농법의 ‘나라 긴다이(긴키대학) 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유식자·시게오카 교수)

- 산둥성에서는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고령화, 토지의 사용권, 토지 개량, 화학비료 등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생각했을 때 산둥성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성을 띠다고 생각한다.

(중국·산둥성)

- 농업을 중핵으로 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가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풍부한 발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 차원과는 별개로 지방정부간의 개별적인 경제 파트너십 협정과 같은 것을 맺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예를 들면 다양하고 풍부한 동아시아 먹거리의 특성을 살려 어린이식당과 급식 등에서 다양한 나라와 지역의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다양성과 국제성이라는 것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논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다.

(일본·나라현)

총 괄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고령화와 젊은이의 도시유출 등으로 동아시아의 각 지역이 놓여있는 상황은 비슷해지고 있다. 또한, 많은 지방정부가 공업화에 의해 풍요로워진 국가 안에서 농업을 어떻게 자리매김해 갈까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

근년 성장산업이 되어 가고 있는 일본의 농업에는 크게 2가지 조류가 있다. 하나는 4차 산업, 즉 하이테크와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계화된 효율적인 농업이다. 이른바 ‘식물공장’에는 이미 많은 대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농촌 주민과 협력하여 기술개발 등에 착수하는 등 기업과 농촌의 컬래버레이션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싸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것을 소량만 만들어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농업이다. 상당히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며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 만큼의 수요는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는 그다지 맞지 않는 생산수법일지도 모른다. 시모이치초의 감잎 재배를 비롯하여 야채와 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등한 사례가 전개되고 있으며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켜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오늘 토의 가운데에서도 동아시아의 농업이 지향해야 할 모습의 하나로 소량·고부가가치 생산이라는 수법이 새삼 주목을 모았었다.

또한, 농촌부의 행정 서비스와 인프라 유지, 일손 부족 등도 동아시아에 공통된 과제라는 것이 새삼 대두되었다.

일본에서는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서포트가 실시되고 있는데 재원 부족에 따른 보조금 등의 삭감도 있어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가 다양한 시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중국과 한국에는 대담하고 선진적인 시책도 많았다. 실제의 시책과 그 성과, 과제에 대해 서로 보고하여 총론이 아닌 각론 부분에서 구체적인 노하우를 교환하는 열띤 논의를 펼칠 수 있었다.

참가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발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메인 세션 **테마2**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 육성」**

참가 지방정부	중 국 : 청두시, 린이시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필 리 핀 : 발레르시
	한 국 : 경기도,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경주시 일 본 : 후쿠시마현,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돗토리현, 나라현, 니가타시, 나라시, 고세시, 가쓰라기시, 미야케초, 아스카무라, 고료초, 시모이치초
강 사	다나카 오사무 나라현립대학 특임교수,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중국연구교류 고문

강사 스피치



다나카 오사무 나라현립대학 특임교수,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중국연구교류 고문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 육성’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글로벌화 그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산업혁명과 시장경제화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해체 등이 진행되는 한편, 빈곤과 대량실업의 발생 등 경제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1950~60년대에는 일단 격차가 축소되기 시작하여 일본에서도 대중소비사회가 발전되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일쇼크 등으로 선진국 중심의 국제자원관리 시스템이 붕괴되어 오일 머니의 대두를 초래했다. 선진국의 경제사회가 성숙화되어 가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정보혁명·금융혁명이 크게 진전되었다. ‘작은 정부’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경제격차의 재확대와 선진국의 균질화가 진행되었다. 90년대 냉전종결 후에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중국의 시장화 개혁 등으로 경제의 본격적인 글로벌화가 진행, 자본과 노동의 국제적인 이동도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는 브릭스(BRICS)가 세계의 주목을 받아 생산기지와 자본의 이전이 가속화되는 한편, 금융상품을 통해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와 글로벌화의 부정적인 면이 표면화되고 있다.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신흥국으로부터의 값싼 노동력과 제품이 대량 유입됨으로써 선진국에서는 중산층의 양극분해가 일어나고 영국의 EU탈퇴와 미국 트럼프정권의 탄생 등 반세계화, 대중주의가 세계적인 대세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세계적으로 고도정보화가 한층 더 진행될 것이다. AI의 발전은 화이트칼라에게도 실업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글로벌화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사회의 활력과 안정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인간력 향상이 필요하다. 전례를 답습하는 세로축과 타국이나 지역의 제도 등을 참고로 하는 가로축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종래의 2차원적 사고를 대신하여, 현 상황을 감안한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는 ‘구상력’이라는 축을 추가한 3차원적 사고가 중요하게 된다.

또한, 장수사회에서는 인생을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제1단계는 사회참가를 위한 준비기간. 제2단계는 사회인 생활의 전반으로 30대까지 일하고 40대 이후에는 점차 젊은층에게 일을 맡겨가며, 제3단계인 사회인 후반의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자신의 관심이나 체력에 맞춰 무리 없는 형태로 사회에 참여해 나간다.

제3단계를 풍요롭게 보내고 사회에 공헌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제2단계에서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고려하고 자기연구는 필수적이다. 나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T자형 인간’으로 나타내고 있다. 알파벳의 ‘T’의 가로축을 제너럴리스트 축, 세로축을 스페셜리스트 축으로 하고 가로축은 지혜·교양과 경험의 풍부함, 세로축은 전문지식의 해박함을 나타낸다. 두 축의 균형이 중요하며 일본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나 풍부한 교양을 가진 다양한 스페셜리스트 집단의 육성이 중요하다. 리더로서는 세로축·가로축 모두 충분히 긴 ‘큰 T자형’ 인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지(知)의 통합이 중요해진다. ‘미니 T자형 인간’은 글로벌화와 고도정보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리버럴 아츠(기초 교양)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전문인재가 높은 윤리관을 익힐 필요가 있다. 사회에 나온 후의 재교육에 대해서도 조직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리어 프리나 도시설계는 공학, 치료방법의 개발은 의학·약학·이학, 사회보장제도의 설계는 사회학·경제학·법학 등과 같이 자연과학·사회과학의 통합도 요구된다. 도쿄대학의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와 같은 종래 학부의 상하체계를 초월한 시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상력을 가진 ‘큰 T자형’ 인간을 육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메인 세션 참가자분들



중국 · 청두시

JIANG, Bin
외사교무판공실 주임



필리핀 · 발레르시

Glenda Paladio,
DUMAPAY
시장공실 지방경제발전과 지방경제투자진흥원



중국 · 린이시

ZHU, Jianhua
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고문



한국 · 경기도

JEONG, Kyu Sik
외교통상과 팀장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Koesmayadie Tatang
Padmadinata
서자바지역사무소
행정보좌관



한국 · 충청남도

NAMGUNG, Yeong
행정부지사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Mohd Fadhil Bin
Hassan
말라카주 지방정부국
수석보좌관
(부관방장관 보좌)



한국 · 공주시

JEONG, Hong Suk
농정유통과 과장



한국 · 부여군
YU, Heung Soo
부군수



일본 · 시즈오카현
마스이 히로시
지역외교감



한국 · 경주시
JOO, Nak Young
시장



일본 · 돗토리현
하마구치 미에
관광교류국 교류추진과
계장



일본 · 후쿠시마현
아베 히데히로
오사카사무소 소장



일본 · 나라현
아라이 쇼고
지사



일본 · 후쿠이현
미야고시 히로미
산업노동부 노동정책과
과장



일본 · 나라현
(유식자)
이토 다다미치
나라현립대학 학장



일본 · 야마나시현
마세기 다마키
부지사



일본 · 나라현의회
오쿠야마 히로야스
부의장



일본 · 나가노현
나가타 도시히코
산업노동부 고용 ·
취업지원담당 부장



일본 · 나라현의회
와다 게이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일본 · 니가타시
아라이 히토시
부시장



일본 · 미야케초
모리타 고지
정장



일본 · 나라시
우메모리 요시히로
관광경제부 부장



일본 · 아스카무라
모리카와 유이치
촌장



일본 · 고세시
히가시가와 유타카
시장



일본 · 고료초
야마무라 요시유키
정장



일본 · 가쓰라기시
아코 가즈히코
시장



일본 · 시모이치초
스기모토 다쓰아키
정장

특징적 사례 소개

중국 · 청두시

시가 주체가 되어 고도인재 유치에 주력

청두시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인재가 풍부한 도시를 지향하며 고도인재의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2017년에 발표한 ‘청두시 인재우선 발전전략’에서는 호적취득제도의 합리화와 ‘청두 인재 그린카드’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왔다. 또한, 청두시에 온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행사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일하기 쉽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조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스피디한 비즈니스 환경과 슬로 라이프를 양립할 수 있는 도시와 자연이 융합된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 나가노현

지역 산업을 짊어질 인재의 육성과 확보를 지향

일손 부족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팽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다양한 산업분야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육성 및 확보를 지향하고 있다. 지역과 기업이 연계한 캐리어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고등학교에서의 듀얼 시스템 도입, 의무교육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기간산업인 ‘제조업’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립 직업능력개발시설의 학부를 재검토하고, AI·IoT강좌 등 재직자의 스킬업 지원, 이직자 등에의 리커렌트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여 기술혁신의 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도모해 가고자 한다.



한국 · 충청남도

창업 지원과 고용 촉진으로 젊은이의 지역정착을 도모

높은 대학 진학률을 배경으로, 취직 희망처가 대기업과 관공청 등에 편중되면서 노동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내 젊은이들의 정착과 고용률 향상을 위해, 창업기업 대상으로 창업비용·설비 등을 지원, 기업의 고용촉진 서포트, 현업 공무원의 고용확대 등 다양한 고용 진흥책을 실시하는 외에 비정규직 고용, 여성, 젊은이, 고령자, 외국인 등에 대한 대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동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늘리고 있다.



의견 교환 내용

1. 고도의 지식·기술을 가진 글로벌 인재의 확보

(1) 고도인재의 유치

- 청두시에서는 새롭게 시로 전입한 인재를 대상으로, 원스톱형 서비스로 다양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재 그린카드’를 발행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자금 보조,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결혼과 육아, 의료 등 정착 후의 생활과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에도 더욱 충실을 기할 예정이다.
(중국·청두시)
- 청두시 주최로 실시된 지난번 동아시아 지방정부회담에도 참가하였다. 인재 그린카드 발행 등 다양하고 훌륭한 시책들을 배울 수 있었고, 많은 참고가 되었다.
(나라현의회)
- 해외투자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에서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고용의 확대와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민간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창업가의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진흥과 노동자의 능력 향상을 통해 인재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다.
(필리핀·발레르시)
- 중국의 호적제도는 농촌호적과 도시호적이 있다. 최근 도시농촌 간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는 반면, 행정 서비스의 수준과 호적취득의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도시간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청두시에서는 중국 국내 최초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두시의 호적을 부여한다는 과감한 시책을 내놓아 약 20만명의 대졸 전임자가 청두시에서 취직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청두시)

(2) 유학생 등의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의 확보

- 유학생은 수도권 등의 대기업에의 취업 지향이 비교적 낮아, 매칭을 통해 현내 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캐리어 페어’라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학생과 현내 기업을 부스 방식으로 매칭하는 시책으로, 향후 현외 대학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일본·나가노현)
- 지역에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에의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생 및 젊은이들을 해외로 파견하여 그곳에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와 지역에 취직하여 정착하게 한다는 관점도 있을 것이다.
(유식자·이토 학장)
- 청두시는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지역 출신 인재의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발달로 농촌부의 상품이 도시부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어, 예를 들어 젊은이가 농촌부로 돌아와서 유기농 야채 재배나 판매사업 등을 시작하고 있다.
(중국·청두시)
- 발레르시에서는 수당이나 월급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촉진하고 있다. 유학한 학생들에게는 배운 것을 가지고 돌아와, 지역에서 취업하여 지역에서 생활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필리핀·발레르시)
- 현내 학생의 국제화라는 점에서 아트 매니지먼트를 배우는 학생을 상파울로에 있는 외무성의 재팬 하우스에 파견하였다. 또한, 현의 거출금과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후지노쿠니 글로벌 인재육성기금’이라는 기금을 설립하여 고등학생의 장·단기 해외유학과 교직원의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젊고 감성 풍부한 시기에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것이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본·시즈오카현)

2. 지역사회를 젊어질 인재의 확보・육성

(1)U・I턴 등의 지원 및 취업지원

- 나가노현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80%가 현외 대학으로 진학하여, U턴하는 학생은 약 38%에 그친다. 젊은이의 유출 억제와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매력 있는 현내 기업을 알리기 위한 시책으로서 인턴십 매칭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은 ‘일하기 쉬운 환경’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나아가 일하기 좋은 기업을 인증하는 ‘직장 이키이키 어드밴스 컴퍼니 인증제도’로 현내기업에의 취업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나가노현)

- 린이시에서도 학생의 인재 유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지역으로 돌아오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취직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인재의 유효활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폭넓은 분야의 인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린이시)

-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기업을 알리고 그대로 취업으로 연결하는 시책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전용창구 설치와 현외에서도 현내 기업의 인턴십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 기업, 행정의 연계한 ‘COC+(플러스)’라는 시책을 통해 현내 대학생의 현내 취업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야마나시현)

- 시즈오카현에서는 ‘30살이 되면 시즈오카현!’이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진학이나 취직으로 한번은 고향을 떠난 시즈오카현 출신자라도 30살 전후가 되면 시즈오카현으로 돌아와 활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시책으로 등록자들에게는 SNS 등을 통해 시즈오카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신・제공하고 있다.

(일본・시즈오카현)

-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농촌에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는 잠재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도 힘을 쏟고 있다. ‘한 마을 한 회사’ 프로그램의 추진, 온라인 네트워크의 정비 외에 디지털 비즈니스에서의 창업에 관해서는 주 정부로부터의 자금원조도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서자바주)

(2)캐리어 교육과 다양한 인재의 활약을 지원

- 후쿠이현의 취업지별 유효구인배율은 전국 최고이며 여성 취업률도 높다. IoT 도입과 인재 육성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과제이며, 젊은층 인재의 확보, 세컨드 캐리어 형성을 위한 재교육,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본어 교육 등을 실시해 가고자 한다.

(일본・후쿠이현)

- 고령자의 삶의 보람 찾아주기나 개호・생활지원 등을 담당할 인재 확보도 중요하다. 니가타시에서는 ‘지역의 차노마(지역교류의 장)’라는 형태로 고령자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장소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개설과 운영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는 ‘차노마 학교’도 개설하여 ‘지역의 차노마’확대를 도모하는 중이다.

(일본・니가타시)

- 다양한 형태로 캐리어 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후쿠시마현)

-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에서는 자칫 직원들의 지식이나 인간관계가 폐쇄적으로 되어 버리기 쉬운 경향이 있다. 아스카무라에서는 직원들이 가능한 젊을 때 정부나 현, 민간기업에 보내는 등 인사교류에 힘쓰고 있다.

(일본・아스카무라)

-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있는데 일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밸런스’ 보다는 ‘Integration(통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일하면서 생활한다’, 양쪽이 잘 통합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인재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유식자 · 이토 학장)

3.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1) 젊은층의 일할 의욕을 높이는 환경조성

- 충청남도에서는 청년 우대통장과 복지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는 있지만, 약 1년간 매 달 30만원 정도가 카드에 예입되어 회사 방문을 위한 교통비 등 취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한국 · 충청남도)

- 졸업 후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학 4학년생들의 동기부여가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일자리 확보가 행정의 과제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시책의 하나로 서자바주의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에서 지역 대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시키고, 사회에 나가는 것을 가르치는 등,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 말레이시아의 젊은이는 화이트칼라로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역의 기능직 고용창출을 위해 스킬트레이닝 등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SME(Subject Matters Experts:내용영역 전문가)의 양성에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젊은이의 일할 의욕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다. 일하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지가 과제인데, 인턴십은 유효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직장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직접 번 돈을 직접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한 형태의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본 · 나라현)

- 현내 고등학생의 높은 이직률을 생각하면 취업의 중요성을 중학교 시절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세시는 학부모 모임이나 학교 OB 등이 직접 후배들에게 일의 내용과 일에서 얻는 행복, 일하는 의미 등에 대하여 조언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에게 일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다.

(일본 · 고세시)

(2) 지역의 산업 · 고용진흥을 통한 시도

- 항공기 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성장산업이지만, 다공정 일괄발주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관련부품을 단품발주하는 경우가 많은 일본형 생산체제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니가타시에서는 항공기 관련 부품 제조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동공장을 설립하여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조기업을 재구성하고, 매력을 더욱 발산함으로써 수주를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 · 니가타시)

-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창업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취업률, 특히 30~40대 기혼여성들의 취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여성 캐리어 지원계를 창설하는 등 여성의 취업지원에 힘쓰고 있다.

(일본 · 나라시)

- 메이커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마을 내의 생산이 대폭 감소했던 미야케초의 글로벌 산업이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발신으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고령화와 후계자 양성을 위한 경제력 등 과제가 많지만, 고도의 기술력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 미야케초)

- 다른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농업의 후계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대책으로서 ‘농업 학원’을 설립하여 전업농가 육성에 힘쓰고 있다. 조금씩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새롭게 농업을 시작한 젊은이들이 뚜렷한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양말산업에서는 일본 제일을 자랑하는 마을이지만, 기술자가 줄어들어 쇠퇴 경향에 있다. 고부가가치의 생산기술을 더욱 높여가는 시책을 통해 인재 육성을 추진해 갈 생각이다.

(일본 · 고료초)

(3) 동아시아 인재 육성의 미래

- 표준에 맞춰 표준형 일꾼을 만들어내는 교육은 이제 한계가 보이는 것 같다. 글로벌화 사회에서는 개성과 독창성을 토대로 한 기술이 필요하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을 창출하는 인재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 나라현)

- 노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어 자신에게 맞는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글로벌화 교육의 원점이 아닐까. 앞으로 AI혁명이 일어나는 가운데 장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린이들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일본 · 가쓰라기시)

- 지역의 인재 육성에 대하여 3개의 ‘T’를 제안하고 싶다. 기술의 진보라는 의미에서 ‘테크놀로지:Technology’, 재능의 ‘탈런트:Talent’, 다문화 공생으로도 이어지는 관용의 ‘톨러런트:Tolerant’이다. 이 3가지를 잘 조합시키면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유식자 · 이토 학장)

- 우리의 지역 진흥에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고 일할 기회를 창출하여, 동아시아에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도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지역 진흥에 이바지하는 과제 해결방책을 모색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 · 나라현)

총괄



다나카 오사무 나라현립대학 특임교수,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중국연구교류 고문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 육성’에 대해 크게 3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중국 청두시의 사례 소개를 계기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의 확보, 육성에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일본 나가노현의 발표를 토대로 산업인재를 비롯한 지역사회를 젊어질 인재의 확보·육성에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 충청남도의 사례를 토대로 동아시아의 장래를 짚어지고 갈 젊은층의 고용진흥과 인재육성, 교육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었다.

논의하는 가운데 주로 젊은이에게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일할 의욕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가 지방정부들의 공통된 과제의 하나로 큰 관심을 모았던 것 같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젊은이를 어떻게 지역에 정착시킬 것인가. 또는 한번 지역 밖으로 나갔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와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젊은층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참가한 지방정부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과제였다.

많은 지방정부 참가자로부터 행정과제에 대한 귀중한 정보제공과 정책에 관한 알기 쉬운 설명이 있었다. 노동수급의 상황 하나를 보더라도 각 지방정부가 안고 있는 사정이 다를지 모른다. 그러나 공통된 과제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지방정부에서 현재의 과제가 가까운 장래에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같은 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늘 각 지방정부로부터 소개받은 다양한 정책과 시책들을 참고로 하여, 본 세션의 논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되었기를 바란다.



테마1 서브 세션 「농림어업의 진흥」

참가 지방정부	중 국 : 산둥성, 간쑤성, 쑤저우시 한 국 : 공주시, 부여군, 경상북도, 경주시 일 본 : 후쿠이현, 야마나시현, 미에현, 교토부, 와카야마현, 시마네현, 도쿠시마현, 나라현, 고후시, 나라시, 덴리시, 가시하라시, 고세시, 아스카무라, 고료초, 시모이치초
강 사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리저널 리포트에 의거한 발표개요



중국 · 산둥성

해양도시로서의 지역성을 살려, 해양을 통한 지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서,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외로부터의 다양한 해양 자원을 집약한 해양경제협력 모델지구 건설 및 ASEAN + 3(한중일)의 해양 분야에 있어서의 실무협력 추진을 통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영향력 확대 등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는 등, 해외 협력을 추진하여, 플랫폼의 국제적 영향력 향상을 도모하고 또한, 경제 · 항만 · 선박 · 해양공학 · 문화 등에 관한 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포럼은 동아시아지역의 중요한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중국 · 쑤저우시

안후이성의 최북단에 위치한 쑤저우시는 총인구650만명 중 농업인구가 520만명의 농업도시이며, 주로 곡물, 육류, 계란, 야채의 공급거점이다. 농업의 친환경화 · 고도화 · 차별화 · 브랜드화, 증산(増産) 지향에서 품질향상 지향으로 전환, 산업화와 레저 농업의 확대, 농민소득의 대폭적인 증가 등을 목표로 ①품질향상과 증산에 주력, ②농업 비점원 오염 방지사업 실시로 인한 축산업의 개량, ③신형농업의 경영주체 육성, ④공업적 요소를 농업에 활용, ⑤농산물의 철저한 안전관리, ⑥스마트 농업 실현(인터넷 플러스), ⑦애그리투어리즘의 등급에 의한 레저 농업의 브랜드화, ⑧농업기계 · 기술 · 정보 융합에 의한 농업의 현대화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 미에현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산업으로서 선택받는, 지속 가능한 '수익 좋은 농림수산업' 실현을 목표로 하며, 3가지 시책을 중심으로 힘쓰고 있다. ① '인재 육성'에서는, '미에 농업판 MBA 양성주쿠(학원)'이나 '미에 삼림 · 임업 아카데미' 등의 고용형 인턴십을 마련하여,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농업 비즈니스가 가능한 인재와 경영 감각을 갖춘 임업인재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후계자 확보와 육성을 위해, '농복(農福 : 농업종사자×복지단체)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② '생산성 향상'에서는 농지의 대규모화, 농업용수의 파이프라인화, 농림수산업의 스마트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③ '브랜드력 강화'에서는 미에현산 식자재를 활용한 신상품 개발, 전략적 프로모션, GAP 인증 취득 촉진, 수출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 교토부

예로부터 중산간지가 많은 교토부에서는, 소량으로도 수익이 기대되는 교토야채 등의 생산과 브랜드화를 추진해왔다. 교토의 강점을 살린 지속적인 농림수산업의 진흥을 위해, 그리고 또 하나의 시책으로서 ‘인재육성 · 조직 만들기’ 를 위해, 교토농업인재육성 센터 설치 및 ‘교토의 농업응원대’ 결성으로 인한 동반형 지원체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살리기 · 유대감 형성’ 를 위해, 교토부 직원이 농산어촌에 와서 지역 과제 해결에 임하는 ‘마을 일꾼’ 이나, 지역에 거주하여 일을 하면서 지역활동을 지원하는 ‘마을의 공공인원’ 배치도 실시하고 있다. ‘물건 만들기 · 판로개척’ 에서는 교토부 내 · 수도권 · 해외, 각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물 등의 판매 촉진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 시마네현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진행중인 가운데, 중핵적인 경영체를 목표로 하는 신규 취농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취농상담에서 체험, 연수, 취농 이후의 서포트까지, 각 단계에 맞는 세심한 시책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담과 체험에서는 연간20회 이상의 상담회와 취농 버스투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연수나 교육 면에서는 정부의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사업에 의한 연수체제를 구축, 농림 대학교의 유기농업전 공과 개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취농시에는 자영(自營) 취농개시 지원사업으로서 시마네현의 자체적인 설비투자 지원과, 취농 이후에도 관계기관에서 구성하는 지원팀이 각각의 신규 취농자에게 개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을 하면서 다른 일도 병행하며 양쪽에서 소득을 확보하는 ‘반농반X’ 시책도 실시하고 있다.



일본 · 나라시

나라시의 농업은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가 상당히 많다는 특징이 있어, 우선 지역 후계자에 의한 취락 영농의 조직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농가 지원을 위한 시민 후레이아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판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와의 교류를 육성하는 동시에 농산물 홍보나 생산자의 영농에 대한 의욕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임업 진흥에도 힘쓰고 있으며, 환경보전 및 우량 삼림 육성을 위해 미니작업도로 개설을 통한 작업의 효율화, 비용 지원으로 인한 간벌 촉진 등, 삼림이 가진 다면적 기능향상에 힘쓰고 있다. 또한, 유해 조수(鳥獸)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으로서, 포획구제활동 지원이나 새롭게 수렵 면허를 취득하는 분들에게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 덴리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농업의 후계자 확보 · 육성 지원으로서, 신규취농자의 확보, 취락영농조직의 설립지원, 농업 생산법인으로의 이행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생활에 농업을 결부시키기’ 를 위한 시책으로서, 청년 농업자들이 주치가 되어 초등학교 등에서의 농업 체험학습을 지원, 대형 외식기업과 연계하여 특산품(토마토 · 가지)을 활용한 협력 메뉴를 제공, 다세대가 모이는 역전 광장에서의 마르쉐 개최, 해당 광장내의 음식 시설에서의 지역생산 농산물을 제공,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도를 이용한 특산품, 딸기 및 도네와세 감 등을 홍보하고 있다. ‘푸른콩 두유’ 나 ‘안포 꽃감’ 과 같은 지역 농산물의 가공품에 대한 판로 코디네이트 등 6차 산업화를 지원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를 도모하고 있다.



일본 · 아스카무라

아스카무라 농업은 역사적 풍토의 형성·보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후계자 부족이나 유해 조수(鳥獸) 피해에 의한 농업자의 생산 의욕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서, 고령자라도 비교적 쉽게 키울 수 있는 ‘말라바시금치’ 재배 추진 등, ‘생력화(省力化) 야채’ 시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광 농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인기 품종인 ‘아스카 루비’ 에 의한 딸기따기가 호평을 받아, 딸기를 재배하는 신규 취농자가 증가하고 있다. 신규 취농 희망자에게는 농업학원에서 농업기술 및 농업 경영에 관한 실습·강의를 실시하는 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주거 및 농업용 창고의 확보가 큰 과제이며, 앞으로는 주거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본 · 시모이치초

영농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것이 콘셉트인 프로젝트 ‘라쿠라쿠 농법’ 시책을 계승하며, 커뮤니티를 다음세대로 넘겨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단위 ‘정(町)’ 으로서는 존속이 힘들게 되더라도, 각각의 취락의 커뮤니티는 계속 남는다는 생각에서부터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소중한 매개체로서, 지역의 ‘마츠리(축제)’ 를 지속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또한, 농업에 관련된 사람을 조금이라도 늘려가기 위한 시책 중의 하나로서, 농림업의 주말 학원을 개설하였으며, 개설 당초에는 행정과 연계하여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지역 일으키기 협력대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 · 나라현

‘식(食)’ 과 ‘농(農)’ 의 연계를 목표로, ‘나라 식(食)과 농(農)의 매력창조국제 대학(NAFIC)’ 에서는 경영 능력이 높은 농업자와 나라현산 식자재를 활용하여 음식업계에 활약하는 셰프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숙박 시설을 겸비한 레스토랑 ‘오베르주 드 플레장스 사쿠라이’ 를 학내에 설치하여 실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나라현산 농산물 등의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외관이나 맛의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도 ‘나라현 프리미엄 셀렉트’ 로서 일정기준 이상의 것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슐랭 별 하나를 획득한 ‘식(食)’ 의 안테나숍 ‘도키노모리(도쿄)’ 운영이나 유명 셰프와 함께 요리 등, 나라현산 농산물을 즐길 수 있는 ‘나라 푸드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정보 발신에도 크게 힘쓰고 있다.



중국 · 간쑤성

간쑤성의 덩시시는 감자와 중약재(中藥材)의 생산지로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유수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다. 감자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의 확충, 바이러스 프리종 번식보급 체제 구축에 의한 바이러스 프리화를 추진, 감자의 주식화 전략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약재(中藥材)에 대해서는 법 정비나 새로운 정책 시행에 의한 정책체제의 최적화와 함께 인재육성, 품질향상, 의약품의 가공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개선 및 지원체제의 충실화를 도모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이 지역으로 돌아와 감자 및 중약재(中藥材)의 재배와 가공에 종사하여 농업을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 경상북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목표로, 1994년 경상북도와 지역은행, 상공회의소 등의 출자에 의한 제3섹터형 공기업 ‘경북통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농산물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촉진을 위해, 지역 농가와 중소기업의 창구로서, 다양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익을 직접 생산자에게 환원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의 농산물 브랜드 ‘DAILY’ 상표를 해외에서 등록하여 사과 등의 해외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및 중국 등에서 지역 특산품의 전시회 개최도 추진하고 있다.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진행해 나아가고자 한다.



한국 · 경주시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량 감소와 농업자의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다양화를 목표로, 시내84개의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에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호텔 등 지역의 주요 기업 및 식품 가공회사에도 지역산 식자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주요 정책으로서 재배 시설의 확충 및 품종 개량을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로컬푸드 직판장의 설치·확대로 인한 중·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의 생산공동체를 육성하여, 소량 다품목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로 연결하고자 한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수출 확대나 브랜드력 강화,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도 더욱 주력하고자 한다.



일본 · 후쿠이현

일본을 대표하는 쌀 품종인 고시히카리를 낳은 후쿠이현에서는 기술의 정수를 결집하여, 고시히카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브랜드, ‘이치호마레’를 개발하였다. 후보가 되는 20만종의 모종을 하나하나 일일이 손으로 심은 뒤, 특정 유전자를 검출하는 ‘DNA마커’라는 최첨단 기술을 구사하여 모종을 선발. 실크와도 같은 맑은 색과 윤기, 입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함, 점성이 강한 밥알의 환상적인 조화를 특징으로 지닌 고품질, 고부가가치 쌀이 탄생하였다. 생산·판매의 전략으로는 후쿠이현과 JA가 인정한 특히 기술력이 높은 농가만을 선발하여 생산을 의뢰하고, 전국 3,000톤을 한정으로 판매했다. 그 결과, 2018년 9월 발매 이후로 도교 대형 백화점에서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맛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매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 · 야마나시현

야마나시현은 국산 포도를 100% 사용하고 국내에서 양조되는 ‘일본 와인’의 생산량으로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지만, 국내외 소비량 확대로, 양조용 포도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외 다른 산지와와의 경쟁심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양조용 포도의 고품질화가 요구되고 있다. 증산을 위해 계약 재배를 촉진하고 있으며, 와이너리에 대해서는 경작포기지를 활용한 양조용 포도 생산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양조용 품종의 우량 계통 선발을 실시하는 등, 계획적인 고품질화도 진행해 왔다. 또한, 야마나시 대학과 현의 와이너리와의 연계하여, 세미나 개최 등, 양조용 포도 생산을 담당하는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일본 · 와카야마현

와카야마현에서는 약400년 전부터 계승해온 매실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 농업 시스템 ‘미나베 · 다나베의 매실 시스템’이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농업 유산제도를 활용한 농림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후계자 육성, 관광진흥 등에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세계중요농업유산의 이미지를 활용한 현 생산 제품의 홍보에 의한 매실 판매 촉진, ②농업 유산과 같은 ‘스토리’를 새로운 홍보 포인트로 하는 관광진흥, ③시스템 후계자 육성, ④농업 유산의 인정을 목표로 하는 나라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와카야마현 내 2개의 지역이 새롭게 농업 유산 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인정을 받기 위한 연구를 통해 주민간의 교류와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 고세시

고세시는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이 78%로 상당히 높고,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와 함께 후계자 부족 등으로, 경작포기지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새로운 후계자 육성을 목표로,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세시에는 예로부터 고급품으로서 유명했던 ‘야마토이모(大和芋:참마의 한 품종)’는 재배가 어렵기도 하고, 생산자가 격감하고 있어, 종래에는 판매되지 못했던 크기가 작은 것,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것을 소주로 가공하여 제품화한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은 ‘야마토이모’의 상품화를 위해, 시책에 따른 새로운 농가 후계자 발굴을 하고자 한다.



일본 · 고료초

농업의 새로운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 취농 희망자로서 독립하여 농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고료초 농업학원’을 개설하였다. 농업학원의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흙을 만드는 방법, 농약, 병해충, 딸기와 가지의 재배방법, 6차 산업화에 특화한 농산물의 유통 등에 대하여 반년동안 강의 강습을 마친 뒤, 2년간 실습을 하는 것이다. 초기투자자의 자금부족 원인으로 학원생들이 졸업 후에도 독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딸기 재배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코워킹 스페이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우선은 그 곳에서, 재배기술과 함께 경영능력을 익힌 후, 판로를 개척받아 독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한국 · 공주시

농업인구의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공주시의 농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 농업자를 위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블루베리를 대표적인 품목으로 선정하여, 소규모 재배 생산자의 조직화를 전개하고 있다. 선별 작업의 기계화를 도입하는 등, 생산의 대규모화 및 표준화를 도모함으로써 향기와 사이즈와 같은 상품성을 알기 쉽고,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주시의 지원으로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매출면에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행정주도로는 한계가 있다.



일본 · 고후시

고후시는2027년 리니어 중앙신칸센 개통을 앞두고, 이주 등 인구 증가와 수도권 · 주 교권(나고야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의 도시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지활용과 새로운 농업시책의 전개가 요구된다. 또한,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영 농 후계자 감소에 대한 대책과 농지의 도시적 토지이용의 조정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①민간 활력을 활용한 쉐어 농지 정비 및 공동 농장 추진, ②농업산지와 관광지를 연계 함으로써, 농업 · 관광 협력의 새로운 순환 루트 개척, ③체험 농업 실시 등 도시농촌 교 류사업 추진, ④리니어 효과로 인한 새로운 농산물의 브랜드화 추진, ⑤농업 관련 기업 이나 농업 생산법인의 유치 등을 계획하여, 도시와 지역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농업 산업 도시를 목표로 하고자 한다.



한국 · 부여군

농업은 지역의 중요한 산업이며, 특히 원예 산업은 농가 소득의 약70%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의 원예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많은 시설이 노후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환경 변화와 시장개방, 농촌의 고령화 등이 진행중인 가운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7년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이 시작되 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유리온실과 유통센터, 선별장 등으로 이루어진 약 20.1ha의 온실단지로서, 현재 기반조성 이외에 용수, 상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정비, 전기공사 등이 진행중이다. 한국 최초의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 농업의 새로운 발전을 기 대하고 있다.



일본 · 도쿠시마현

다양한 시책의 호순환에 의한 ‘돈 버는 농림수산업’ 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 재를 육성한다’ 를 위해, 산학관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 등을 실시하는 ‘사이언스 존’ 을 거점으로 한 인재 육성과 ‘생산을 늘린다’ 를 위해 AI · IoT 등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시설 원예 등 스마트 농업이나 마켓인 형태의 산지 만들기를 실시, 또한 ‘시장을 개척한다’ 를 위해, ‘턴테이블(Turn Table)’ 과 같은 정보 발신거점 시설개설 등 수도 권의 판로 확대 및 해외 수출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생산을 지지한다’ 를 위해, 포장(圃場) 등의 생산기반을 정비함과 동시에 ‘지역을 보호한다’ 를 위해, 세계중요농업 유산에 등재된 경사지 농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 가시하라시

가시하라시에는 (주)제이텍트의 나라(奈良) 공장이 있으며, 약 2, 000명이 근무하는 본 공장에서는 지역과의 연결을 중시하고 있다. 지역활동에 대한 지원 이외에 지역행사 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도이치초(十市町)라는 취락에서는 이러한 시책에 응 하는 형태로, 농업제사인 수레축제에 수레를 끄는 사람으로 해당 회사 사원들이나 가족 에게 참가하도록 하거나, 공장에 인접해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모내기나 벼 베기 등의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도이치초), 기업(제이텍트 등), 행정(가시하라시)에서 ‘지역협의회’ 를 구성하여, 연계 · 협동하여 농지보전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취 락 영농을 추진함으로써 전통문화와 농촌자원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의견 교환 내용

- 브랜드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농업 자체에 지역 특성이나 매력을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시책에 대해 상호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새로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식자 · 시게오카 교수)

- 일본에서도 지역상사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상북도의 경북 통상주식회사와 같은 대규모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아직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시책은 매우 참고할 만 하다.

(모타니 강사)

- 내셔널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지역 브랜드가 더욱 중요하다.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키워 나아갈 때, 지방 정부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절차탁마함으로써 세계를 향해 한층 더 어필해 나아갈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실현해 주었으면 한다.

(모타니 강사)

- 지역이름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지역의 브랜드력 향상을 위해 이러한 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식자 · 시게오카 교수)

- 고세시의 브랜드 야채 ‘야마토이모’의 시책처럼, 종래에는 크기나 모양이 좋지 못하여 상품으로 판매되지 못했던 것들을 가공 등 6차 산업화를 통해 판매하게 되고, 생산자의 경작 의욕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은 중요하다.

(모타니 강사)

- 공주시에서도 관광과 농업의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끼리 접근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어렵지만, 분야 간의 중간적 조직을 키우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 · 공주시)

-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 프로젝트에는 7개의 법인과 개인이 경영 주체로서 참가하고 있다. 향후에는 주변 농가도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수출이나 대형 마트를 통해 생산물을 출하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국 · 부여군)

- 도쿠시마현의 ‘턴테이블’이라는 시설은 통상적인 안테나숍과는 달리,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시정촌(市町村)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방문객은 알고보니 도쿠시마 현산품으로 만들어진 요리를 먹었거나, 점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그 곳이 도쿠시마현의 가게라는 것을 알게 되는 체험형 시설을 콘셉트로 하고 있다.

(일본 · 도쿠시마현)

- 종약재 ‘당귀’의 재배는 생산자에게 트레이닝을 시키거나, 전문가 파견에 의한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가공은 품질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연구 개발 · 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중국 · 간쑤성)

- 야마나시에는 정년퇴직 이후에 U턴 · I턴 등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다. 전직 교원이거나 IT 기업에 근무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분들을 지역에 초청할 수 있다. 아직 60세 전후의 비교적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농업 후계자로서 향후 15년~20년 가까이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 · 야마나시현)

- 젊은 층의 신규 취농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학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입학원 희망자는 정년퇴직자분들이 많다. 평균연령은 약 51세이며, 젊은층이 적은 것이 실정이다.

(일본 · 고료초)

- 농업을 배우고, 뜻을 가진 젊은층의 참신한 발상과 노력에 의해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이 회합에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사례가 보고될 것이기에, 앞으로의 전개가 매우 기대된다.

(모타니 강사)

강사 총괄 코멘트



공업의 세계에서 공장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에는 토요타 자동차의 최고 브랜드인 렉서스의 최대 제조공장이 있다. 하지만 미야와카시의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조건이 좋은 구인광고를 내더라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로봇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에 대기업의 최첨단 공장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왜일까? 공장에서는 기계로도 제작 가능한 것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기가 어려워 일할 사람이 잘 모이지 않는 것이다. 인간이 공리를 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특히 젊은 층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농업은 바야흐로 즐겁게 공리하면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일이라 인식하며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며 건강에도 상당히 좋고, 고령이 되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일이다.

농업이 살아남고, 공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SF와 같은 세계가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른다. 오늘 모여주신 여러분은 쇠퇴해가는 농업을 어떻게 해서든 지지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미래의 성장 산업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고 생각한다.



테마2 서브 세션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 육성」

참가 지방정부	중 국 : 청두시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필 리 핀 : 발레르시 한 국 : 경기도, 충청남도 일 본 :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나가노현, 시즈오카현, 나라현, 가쓰라기시, 미야케초
강 사	다나카 오사무 나라현립대학 특임교수,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중국연구교류 고문

리저널 리포트에 근거한 발표 개요



중국 · 청두시

‘청두시 인재 신정책 12조’를 내세워 특히, 젊은층의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청두시에서 취직을 한 경우, 시의 호적을 부여하는 시책과 구직활동시 지원 시스템 등 청두시에서의 취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창업·기업(起業) 초기의 자금 원조와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업의 사내 인재의 트레이닝 등에 있어, 전문성이 높은 인재 육성을 장려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무료 연수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두시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의미로 현지에서 육성한 인재와 시외(市外)로부터 유치한 인재가 함께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출신자 인재의 날’을 만드는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 야마가타현

외국인 유학생을 현내 기업에의 취직을 촉진하고, 기업과 모국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스 투어 형식의 기업 견학회는 유학생이 현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설명이나 제조현장 등의 견학, 질의응답·의견교환을 통해 양쪽이 서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이다. 또한, 현내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업합동 설명회도 실시하고 있다. 야마가타 대학이 주체가 되어 우수한 유학생을 수용하고 전문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내 기업의 문화풍습에 대한 이해와 일본어 능력의 습득 등, 기업이 원하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며, 산학관에서 조직한 ‘더 미래 컨소시엄’에서는 회원으로서 장학금 재원에 대한 부담금 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 후쿠시마현

원자력 재해로부터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고용기회 창출·확보, 산업인재의 육성·능력 개발, 국제이해 교육 추진 등을 목표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부과학성의 슈퍼글로벌 하이스쿨 지정학교에서, 해외 고등학교와의 교류를 도모하고, 사회 과제에 대한 관심이나 교양을 쌓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능력 육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현에서의 취직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게 취업 지원, ‘F턴’ 희망자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교육·연구, 방사선 모니터링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기술을 습득한 인재의 육성, 로봇이나 재생가능 에너지 등의 기술자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해외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300명의 공무원 프로그램에 의한 개발추진 체제정비를 통해 지방정부기관의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책정했다. 글로벌 전략으로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책정하는 능력의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책 내용은 우선,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38세 미만의 지방정부 직원 후보자를 채용하여, 책임감, 리더십, 매니지먼트 능력 등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 대학에서 박사과정의 정규 교육을 받기 위한 지원으로서, 유학처 및 박사과정 장학금 확보를 위해, 글로벌한 협력 관계 확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개발에 관한 박사연구 결과의 응용·발전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필리핀 · 발레르시

안정적인 신분의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시민들이 국내외의 다른 지역에서 고용기회를 찾고, 결과적으로 이민 노동자가 증가하여, 소비 패턴이 변화하거나, 정부 지원에 완전히 의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 대책으로서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현지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사업투자 장려를 위한 각종 기업(起業) 관련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 시책도 추진해 왔다. 그리고 현지 창업가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인 자립과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일본 · 나라현

‘일할 의욕’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나라현 직업능력 개발계획을 책정한 뒤, ‘재직자’, ‘학생·청년 무직자’, ‘이직자’라는 3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 각각에 대한 시책을 실시하고자 한다. 재직자를 위해서는 젊은층 사원을 위한 모티베이션 향상 연수, 인재 육성·활용에 관한 세미나 등 기업이 실시하는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생·청년 무직자를 위해서는 유급 인턴십, 학교 현장에서의 직업 체험활동 실시와 같은 실학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직자를 위해서는 사회인 기초력 양성, 취직·정착과 연결되는 직업훈련 실시, 타카 서비스 확충 등 환경 정비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일본 · 나가노현

향학향취(郷学郷就)의 산업인재 육성·확보를 위해, 지역에서 공부한 인재가 지역에서 취직하여, 지역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단체나 노동단체, 학식 경험자 등과 함께 설치한 ‘나가노현 취업촉진·취업형태 개혁 전략회의’에서는 산업 분야나 각 지역의 현황·과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고자 한다. 다음 세대를 젊어지고 갈, 지역 활력 유지에 중요한 젊은층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53개교의 U턴 취직촉진 협정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에게 정보제공 및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인턴십 촉진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나 해외로부터의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대학·산업계와 연계하여 매칭 등을 통해 유학생의 현내 기업으로의 취직을 도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기능중시형 인재 개발에 있어서의 정부 관행의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20년까지 유 기능자의 말레이시아인 노동자를 35% 창출하고, 국가 인적자본 아젠다에 공헌함과 동시에 고용기회의 증가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기업 및 정부기관에서는 유기능자 여성의 등용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의 여성 참가를 더욱 촉진시키고자 한다.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지역 커뮤니티 참여 및 관여에 대한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하기 위한 지식 · 기능의 개발을 위해,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한국 · 경기도

경기도는 한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해양레저 산업의 국내 최대의 소비지로서, 해양 레저를 한층 더 활성화시키고 해양 관련 사고방지를 위해 엔진이나 선체의 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적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 2016년부터 해양레저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훈련받은 정비인재에 의한 해양레저 관련 사고 예방,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고용 창출에 기여,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운영을 통해 한국 해양 레저문화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단독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교육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중이다.



한국 · 충청남도

젊은층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서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창출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 정책이나 커뮤니티 육성 등, 다방면으로 연계하여 대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젊은층을 위한 셰어하우스 운영이나 젊은층에게 주거를 지원, 그리고 청년 우대통장 · 복지카드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젊은층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여 창업공간 제공 및 창업인재 발굴 · 육성을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다. 이 이외에도 충청남도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는 설비투자 지원, 노동 수급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 시즈오카현

‘부국유덕의 아름다운 “후지노쿠니” 인재육성 · 부(富) 이루기’ 라는 새로운 비전을 책정하여,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 세대를 이끌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현내 기업 · 단체의 협력을 얻어 ‘후지노쿠니 글로벌 인재 육성 기금’ 을 창설하여, 국제적 활약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 등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모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 다문화 공생의 지역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활약하기 쉬운 환경 정비와 일하는 방식 개혁을 목표로 하여, 산업계 · 노동계 · 교육계 등으로 구성된 현민 회의에서 ‘산업인재 확보 · 육성 플랜’ 을 책정하여, 다양한 인재 활용에 임하는 기업의 좋은 사례와 롤모델이 되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발신하는 정주 외국인 롤모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 가쓰라기시

영어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길러,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힘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영어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수업을 실시하는 등 영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나 교재연구, 모의 수업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여름방학의 ‘영어 어린이광장’은 가쓰라기시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ALT가 어린이들과 거의 영어만으로 게임이나 일상회화 연습을 하며, 즐기면서 영어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를 알리는 시민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카페에서의 영어 학습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도 더욱 지원을 확대해 나갈것이다.



일본 • 미야케초

2021년, 미야케초의 글러브 미트 산업은 100주년을 맞이한다. 메이커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마을내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어, 마을과 기업의 정보·매력 발굴, 후계자를 육성하는 경제력, 판매 촉진을 위한 비전 등 많은 과제들이 있다. 100주년을 계기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써 후계자 육성과 새로운 장인 창출, 해외 수출에 대한 판로 구축, 브랜드 설립과 브랜드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하여 ①글러브 100주년 기념 사업 실시, ②글러브 미트 장인 취업 희망자를 마을내 사업자에게 알선, ③마을외 거주 장인 취업희망자의 마을내 정착 지원, ④각종 이벤트에서의 전시·제작 시범, ⑤각종 미디어 출연 등을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의견 교환 내용

-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기의 젊은 세대는 일을 하면 생활이 풍요로워진다는 환경에서 자랐으며, 장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한편, 경제 침체나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현대의 젊은 세대는 일을 하는 것이 밝은 미래로 연결된다는 이미지를 갖기 어렵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그다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등, 환경적으로 풍족해 지고 있는 것도 일할 의욕 저하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나카 강사)
- 지역을 발전시키거나, 지역 속에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힘이 필요하다. 지역의 인재는 지역에서 육성하고, 지역에의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해 나가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하면서 로컬한 인재, 즉 ‘글로벌’ 한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유식자 · 이토 학장)
-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기업에서 채용한 경우, 정착률에 대해서 채용 이후에도 추적을 실시하는 등 데이터를 파악한 뒤,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 야마가타현)
- 해외에서는 박사과정을 취득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스테이터스)가 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인재가 조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이 그다지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조직은 그 조직내의 교육만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현재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직내 교육만으로 새로운 인재를 훌륭하게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나카 강사)
- 설문 조사 등에 따르면 현대의 젊은 세대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임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는지, 충분한 휴가를 얻을 수 있는지, 기업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일하기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육아를 하기 쉬운 휴가제도나 단시간 근무제도 등 일하기 쉬운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시책도 실시하고 있다.
(일본 · 나가노현)
-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수업료가 저렴하여 입학 희망자가 많지만, 이러한 대학은 20개뿐이다. 한편, 사립 대학은 수업료가 비싸서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학 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학생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 서자바주의 인구 약 4, 800만명 중, 현역 세대는 약 3, 000만명이며, 고용 창출이 시급한 과제이다. 일본에서는 고용은 있어도 인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도네시아로부터 노동자를 수용해주는 방법이나 수용처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 미야케초의 글러브 산업과 같이, 매우 뛰어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지도가 낮거나, 전통적인 기술 계승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것들은 특히, 일본의 중소기업의 발전에 있어, 큰 과제라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다나카 강사)
- 앞으로 지방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져 갈 것이다. 모두가 풍요롭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거의 사례 등을 통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가 어떻게 다문화 공생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나카 강사)
- 시즈오카현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상호 파견사업은 우호제휴협정의 체결처와 각서를 교환하고 있는 지방 정부 간에 실시하고 있다. 예년 약 20~30명 규모의 교류를 하고 있으며, 몽골의 도르노고비현과는 고등학생 주체의 상호 파견을 하고, 중국 저장성과는 경제 · 산업 · 교육 ·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청년들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 시즈오카현)

- 기능 실습생이 가능한한 오랜 기간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하며, 기능 실습제도의 실기시험 수험에 대한 지원으로서, 일본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기업등으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으며, 수강 희망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수용조합연합회 발족, 실습생의 노동환경 개선, 수용창구가 되는 관리단체간의 정보 공유, 새로운 국가로부터의 실습생 수용에 관한 조정 등 행정면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일본 · 시즈오카현)

- 학생이 재학중에 현내 기업에서 임금을 받으면서 연수를 실시하고, 또한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서도 인정한다는 ‘유급 인턴십’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많지만, 학교 측과의 조정이 과제이며, 앞으로도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일본 · 나라현)

- 나가노현의 전문 고등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듀얼 시스템’은 코디네이터가 고등학교와 지역의 기업을 연결하여, 기업과 연계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과 학교에서 공부한 지식이나 기술을 기업에 가서 실천한다는 것을 상승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일본 · 나가노현)

- 발레르시에서도 우호제휴를 체결하고 있는 지방정부 간에 학생 상호 파견을 실시하고 있다. 어학 공부의 기회를 부여하여 장래적으로 지역의 대사(大使)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필리핀 · 발레르시)

- 충청남도에서도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지역인재 유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 정책은 물론,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주거의 편리성이나 문화적 시설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를 위한 셰어하우스 운영 및 문화적 시설 정비 등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 충청남도)

강사 총괄 코멘트



많은 사례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각 지방정부의 다양한 고충과 시행착오를 알 수 있었다. 지방정부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사정도 다르고, 과제와 요구 역시 똑같지 않다. 이들에 대응해 나아가기 위해 매우 다양한 시책들이 실시되어 왔다. 본 세션에 참가해주신 여러분은 과제 해결을 위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으셨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해외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미 해외 인재나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와 같은 현실적인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과 같이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지역 인재를 어떻게 확보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지 등 큰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심각한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과 같은 큰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부도 있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발언, 질문들을 들을 수 있었고, 이 회합을 계기로 앞으로도 각 지방정부간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지방정부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분과회 등 보고

◆분과회 보고



시모이치초 「농림어업 분과회」

스기모토 다쓰아키 시모이치초 정장

9월 3일, 시모이치초에서 나라여자대학의 데라오카 신고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 3현(縣) 7시정촌(市町村)이 참가하는 ‘농림어업 분과회’를 개최하였다.

시모이치초는 급경사 산림이 전체 면적의 약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대한 수원지(樹園地)에서 주로 감을 재배해 왔지만, 감 재배는 고령자에 있어 부담이 크기 때문에 10년~20년 뒤에는 약 절반 정도의 농업자가 은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분과회에서는 우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라쿠라쿠 농법’ 정책에 대한 강사의 발표가 있었다. ‘라쿠라쿠 농법’은 ‘취락 점검’ ‘신체 점검’ ‘라쿠라쿠 재배’ ‘전동 운반차’와 같이 4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농기간을 10년 연장하여 편하고 즐겁게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발일의 유니버설 디자인화를 목표로 하는 산학관민(産學官民)의 공동 프로젝트이다.

이어서, 시모이치초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응원하는 사업 ‘시모이치 초 “겐키지루 시취락” 사업’을 발표하였다. 향후 커뮤니티의 지속을 목표로 하는 ‘라쿠라쿠 농법’의 이념을 계승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시책과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시작된 원농(援農) 프로젝트 ‘시모이치 나지칸’은 농업 후계자 부족을 해소하고, 이주 정착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례 소개 후, ‘라쿠라쿠 농법’에 사용하는 전동 운반차의 조작 체험과 각 참가자들의 사례 발표·의견교환을 실시했다.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둔 농산물의 GAP 인증 취득 촉진, 지역의 선진 농가들의 고용형 인턴십, 신규 취농자의 주거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그 이외에도 참가자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강사분께서 ‘해외를 내다본 돈 버는 농업과 지역 전체를 보전하고 사회적 측면으로도 배려하는 농업은 서로 어우러질 수 없는 것인가, 또는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양쪽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은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이번 분과회는 최적의 해답을 찾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총괄해 주셨다.

개최보고

- 개최일 2018년 9월 3일(월)
- 주최 시모이치초(공동개최 나라현, 협력 나라여자대학 야마토·기이반도학연구연구소 나라학연구센터)
- 장소 시모이치초 농촌환경개선센터
- 참가 미에현, 가가와현, 나라현, 가시하라시, 고세시, 가쓰라기시, 미야케초, 아스카무라, 고료초, 시모이치초



토의 모습



전동운반차

◆ 관련 포럼 보고



충청남도 「2018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HONG, Man Pyo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아시아팀장

9월12일~14일에 걸쳐, 충청남도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을 개최하였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이념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제4회째를 맞이하는 금번 포럼은 한국·중국·일본의 지방정부에 더해 말레이시아의 말라카주로 부터도 대표단을 맞이하여 총 600여명이 참가하였다.

‘3농’ 이란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을 지칭하며, 금번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 를 테마로 농업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을 진행하였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창길 원장의 기조강연과 지방정부 대표에 의한

디스커션 등을 실시한 후, 각 세션으로 나뉘어 사례 소개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지역먹거리 전략과 지방정부 정책과제(지역 푸드플랜)’, ‘인구감소시대 농촌마을 재생(재편) 전략’, ‘기후 변화 대응 미래 농업기술 혁신 전략’, ‘농업·농촌 분야 ODA(공적개발원조) 추진 실태와 확대전략’ 의 각 세션에서 지방의원과 유식자도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농업 정책에 있어서는 향후 농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 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진적인 시도와 미래 농업의 형태 등 다양한 의논을 실시하였으나, 간단하게 답이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충청남도도 최선을 다하여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3농(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에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각 지방정부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였으며,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최보고

- 개 최 일 2018년 9월 12일(수)~14(금)
- 주 최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 장 소 리솜스파캐슬(한국 충청남도 예산군)
- 참 가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각국의 지방정부 대표 및 관계자, 유관기관·단체, 농어업인, 학회, 전문가 등
- 주 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



총 회

의장 보고



아라이 쇼고 나라현지사

지난번 회합 이후, 가쓰라기시와 미야케초의 새로운 가입으로 회원은 7개국 72지방정부가 되었다.

앞으로도 발전적인 회합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본 회합과 분과회 등 개최가 가능한 지방정부는 신청하시기 바란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합을 계기로 시작된 ‘동아시아 서머스쿨’ 과 곧 설립 예정인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JETRO) 나라무역정보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서머스쿨 소개



다니가키 히로코 나라현 지역진흥부 차장

나라현에서는 제1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을 계기로, 2011년부터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차세대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동아시아 각지의 지방정부 직원, 대학생,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집중형 세미나 ‘동아시아 서머스쿨’ 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헤이조쿄 시대에 근린 국가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금까지 총 8회 실시하였으며 300명 이상의 분들이 참가해 주셨다.

커리큘럼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으며, 역사와 문화, 과학, 환경, 의료 및 외교 등 각 분야에 정통한 저명한 강사진에 의한 강의 외에도 현대의 문화유산과 생활 문화 체험 등 충실한 내용으로 짜여있다. 참가자들로부터는 ‘문화와 정치 등의 상이점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등 많은 칭찬을 받았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지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상호 문화를 존중하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주력하고자 한다.

2019년 8월에 개최 예정인 제9회 서머스쿨에 각 지방정부 직원 및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제트로(JETRO) 나라무역정보센터 소개



야마모토 사토시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JETRO) 나라무역정보센터 소장

제트로 나라무역정보센터가 일본 국내 48번째의 거점으로서 11월 12일에 개설된다. 본 센터의 업무는 중견·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지원, 대내 직접투자의 확대 지원이다. 또한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도, 고도 외국인 인턴십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제트로의 해외 네트워크는 54개국 74사무소에 이른다.

나라현에는 전통 공예품을 비롯한 섬유, 플라스틱 산업 등의 고품질 제품, 요시노스기 삼나무와 감, 딸기 등 품질 좋은 농림산물이 많이 있다. 향후 바이어 분들을 나라에 초대하여 해외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싶다.

또한, 투자유치로 일본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 일본에서의 거점 설립에 관한 절차, 세무, 법무, 사회보장 등의 정보 제공, 인재와 부동산에 관련된 상담 대응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개시 후, 일본에서의 업무 확대에 대해서도 국내사무소와 연계하여 지원한다.



대표 기자회견



아라이 쇼고 나라현지사

제9회째를 맞이한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 6개국 39개 지방정부가 참가를 해주셨다.

이번에는 ‘농림어업의 진흥’과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육성’이라는 연관되는 2가지 테마로써 의견 교환을 실시하였다. 양 테마의 메인 세션에 참가했는데, 두 가지 테마 모두 공통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의가 큰 회합이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지방정부 PR타임을 이용하여 산둥성, 서자바주, 발레르시 등에서 각 지방정부의 매력을 소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회원수는 7개국 72개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합은 2010년의 헤이조(平城) 천도 1300년을 계기로 발족되었다. 나라(奈良) 그리고 일본은 당시 동아시아의 선진국가였던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문명을 받아들여 공부하여, 국가의 기초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동아시아의 향후 발전을 위한 배움의 장을 나라현이 주최하여 마련하게 된 것이 계기이다.

이러한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본 회합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지방정부가 상호 교류하며, 각각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합이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참가지방정부 대표 코멘트



중국 · 청두시 **JIANG, Bin**

청두시 외사교무판공실 주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강사분들의 전문적인 조언이나 실례에 관한 논의 등,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각 지방도시의 환경과 실정에 따라 차이점도 있지만 여러분의 발표를 통해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2가지 테마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 소개를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살려 청두시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두시는 중국 국내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인기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주력하고자 한다.

지난해에는 제8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본 회의가 청두시에서 개최되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회합에 참가하고 싶다. 여러분도 꼭 청두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Koesmayadie Tatang Padmadinata**

서자바지역사무소 행정정보좌관

나라현 여러분의 열렬한 환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다양한 토의를 할 수 있었고, 매우 의미 있는 회합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유익한 회합을 언젠가 서자바주의 주도, 반둥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반둥시는 1955년 아시아 · 아프리카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5년에는 같은 회의의 60주년 기념 회합관련 행사가 열린 곳이다.

이번 회합에서는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한국, 일본의 각 지방정부 관계자분들과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인사를 전한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Zamzuri Bin Ariffin**

아롤르 가자 시의회의장

이와 같은 회합을 개최해주신 나라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회합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지역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었고, 매우 활발하고 다양한 주제의 논의였다.

말레이시아, 특히 말라카주는 아직 발전단계에 있다. 오는 2019년에는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말라카주를 찾아주시기 바란다. 또한 여기에 계신 분들도 꼭 말라카주를 방문해 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다음 제10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번 회합을 개최해주신 나라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참가지방정부 대표 코멘트



필리핀 · 발레르시 ····· Glenda Paladio, DUMAPAY

시장공실 지방경제발전과 지방경제투자진흥원

발레르시를 대표하여 이번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사는 맛있었고, 회합은 일정대로 정확히 진행되었다.

이번 회합에서는 특히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점에 대해 지방정부간의 여러 가지 차이점과 동시에 공통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상호간 존중하면서 뜻깊은 토론을 나눌 수 있었고 다른 대표단 분들과의 교류도 깊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라현 지사님께 이번 회합의 성공을 축하드리며, 다음 제10회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도 참가하고 싶다.



한국 · 충청남도 ····· HONG, Man Pyo

경제통상실 아시아팀장

백제시대부터 충청남도와 나라는 깊은 관계가 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에도 초창기부터 계속 종사해 왔다.

예로부터 문화와 사물, 생각은 서로의 나라를 넘나드는 것이며, 한 나라에서만, 한 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나라현 지사님께서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상호간 협력해 나간다면 동아시아는 반드시 평화롭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회합에 적극 협력하여 충청남도에서도 본 회합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 회합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적교류와 정책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라현 지사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일본 · 야마나시현 ····· 마세기 다마키 야마나시현 부지사

회합의 개최에 있어 나라현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은 '농림어업의 진흥'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 육성'의 2가지 테마로 동아시아의 각 지방정부가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

과제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많았고, 멀리 떨어진 나라도 친근감이랄까 매우 가까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한편, 대책에 대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정보를 야마나시현의 발전을 위해서도 활용하고 싶다.

이번 회합을 통해 각 지방정부의 교류가 한층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

각 강사 코멘트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농림어업의 진흥’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노하우를 교환하며 매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과 일본은 인구성숙이나 수도로 일극집중되는 현상 등, 매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 지역을 지지해온 농업이 실제로 떠안고 있는 과제 면에서도 공통점이 많다. 이른 시기부터 해당 과제에 직면해 온 일본에서는 이미 다양한 시책 사례가 있으며, 한편 한국은 매우 선진적이고 과감한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급격한 인구성숙으로 인해 ‘일손부족, 환경보전, 건강지향 증진, 국제경쟁’ 등 일본이 21세기에 직면했던 문제들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하는 의의는 상당히 크다.

나라현의 농업은 비록 생산액이 작을지는 모르지만,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감과 같이 나라현산으로써 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나라현은 거대 관광 현이지만 관광진흥에 현지 생산 식자재는 빼놓을 수 없다. 본 회합의 회원지방정부에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각 국가의 옛 도움이 많고, 6차산업화를 비롯한 농산품 활용은 공통 과제이다.

산업발전에 있어서 매우 작다고 느낄 수도 있는 농림어업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서로 확인하는 훌륭한 토론을 할 수 있었다.



다나카 오사무 나라현립대학 특임교수, 재무종합정책연구소 중국연구교류 고문

‘글로벌화 사회에 있어서의 인재 육성’에 대해서도 공통의 과제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젊은이의 육성이라는 점에서는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보람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과제가 대두되었었다. 또한 지역에 남아 일하거나 또는 한번 지역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지역으로 돌아와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확보해 갈지가 각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았다.

글로벌화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증가로 어린 시절부터 영어와 접할 기회를 만들어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한 시책이 소개되었다. 보다 공업화가 진척된 지역에서는 인재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써 앞으로 한층 더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와의 공생사회를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과제에 고심하는 곳도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지역에 남아 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과제에 각 지방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품질 글로벌의 기술 계승과 국제적인 브랜드 전개, 해양 레저 관련 전문 기술자 육성 등 유니크한 시책도 있었다.

각 지방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한 시책을 공유하고 공통과제와 시책에 대한 인식을 돈독히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회합이었다.

지방정부 PR타임

지방정부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한층 더 심화시키기 위해 PR타임을 가졌습니다.



지방정부 소개 코너



나라현산 후유가키(단감) PR



떡 찡기 체험



기념 촬영



교류회



익스커션



동아시아 음식 페어

본 회합의 관련 행사로서 개최된 '동아시아 음식 페어' (나라현 농림부 주최)에 참가하여 교류를 심화하였습니다.



나이트 익스커션



사슴 불러 모으기



